



Contents

社 歌

무겁지 않게(즐거운 듯이)

양 명 문 작사
최 창 권 작곡

B^b **E^b** **F⁷**

새 역 사 누 비 면 서 아 앞 - 장 서 전 진 하 네
온 세 계 주 름 잡 아 바 다 멀 리 약 진 하 네

B^b **E^b** **F⁷** **B^b**

줄 기 찬 기 세 - 로 큰 포 부 가 습 에 안 고
새로운 기술 - 로 큰 공로 세워 나 가 며

F⁷ **B^b** **F⁷**

슬 기 와 단 결 로 고 창 의 능 력 발 휘 하 여
성 실 로 듣 치 고 협 동 으로 발 전 하 여

B^b **B^b** **E^b** **B^b** **F⁷** **B^b** **B^b**

복 지 낙 원 견 설 하 세 해 두 팔 에 새 힘 이 총
산 업 건 설 사 명 위 해 몸 바쳐 땀 을 흘 리 네 세

E^b **B^b** **F⁷**

(후렴) 우 리 는 영 예 로 운 산 업 의 역 군 이 다

B^b **B_{TR}** **E^b** **C⁷** **F⁷**

건 설 의 것 발 - 높 이 날 리 자 아 -

B^b **E^b** **F⁷** **B^b**

아 K C C 우 리 의 K C C

Theme



04 Theme Story

06 KCC 좌담회
모두의 성장을 향한 미래지향적 발걸음10 2020 뉴페이스
우리는 2020년 KCC 뉴페이스!

14 Close Up 칭호

16 Part 2. 사업장소개
창호의 본산! 전주1공장18 Part 3. 제품 및 공정
에너지 절약 솔루션
파시브 칭호20 Part 4. 인터뷰
상생과 협력 신뢰와 성장
고려창호와 KCC22 KCC건설 현장탐방
'항구와 뱅파'에 단단함을 더하다26 All that KAC
기본을 지키며 묵묵히 걸어온
자동차유리 인생 30년
KAC 생산2팀 SR과 임성순 기장28 KCC건설 ISSUE
KCC건설 스위첸, 2019 광고제 수상 싹쓸이30 온기를 전하는 사람들 I
KCC건설 연탄나눔 봉사활동 현장32 현장매거진
미네랄을 생산성 향상의 주역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_김천공장

인재 Better

2월의 테마는 '인재'입니다.

2020년 2월호(통권 324호)
주식회사 KCC 월간 사보
발행일 2020년 2월 3일
신고번호 서초 라11683호
신고일자 2016년 8월 17일
발행인 정동익
편집인 정동익
발행처 (주)KCC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령대로 344
기획·편집·디자인 (주)대통기획 02-2269-3613
포지사진제공 공공누리_전라도청

Company

14 Close Up 칭호
Part 1. 정의/역사16 Part 2. 사업장소개
창호의 본산! 전주1공장18 Part 3. 제품 및 공정
에너지 절약 솔루션
파시브 칭호20 Part 4. 인터뷰
상생과 협력 신뢰와 성장
고려창호와 KCC22 KCC건설 현장탐방
'항구와 뱅파'에 단단함을 더하다26 All that KAC
기본을 지키며 묵묵히 걸어온
자동차유리 인생 30년
KAC 생산2팀 SR과 임성순 기장28 KCC건설 ISSUE
KCC건설 스위첸, 2019 광고제 수상 싹쓸이30 온기를 전하는 사람들 I
KCC건설 연탄나눔 봉사활동 현장32 현장매거진
미네랄을 생산성 향상의 주역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_김천공장

Culture

36 해외에서 온 편지
고객의 입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중국 KCB에서 온 편지38 비즈니스 잉글리시 가이드북
비즈니스 이메일은 이렇게!
정보 요청 이메일 작성하기40 사이언스
물의 침투를 막는 기술, 방수42 전문가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회사의 법적 효력을 담고 있는 징표
'인감 사용법'44 주기율표
자들에서 반도체까지 무한 변신!
보석 같은 원소, 규소

46 KCC NEWS

50 우체통

51 함께하는 걸음
업무시간 외 연락
"미안하지만" 한마디를 붙여주세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 정현종 시인

기업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할까? P&G 회장을 역임한 리처드 듀프리는 이렇게 밝혔다. “P&G에서 무엇을 가져가는 상관없습니다. 사람과 브랜드만 남아있으면 P&G는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득한 이 말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사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담고 있다. 좋은 사람이 모여 좋은 미래를 만드는 것처럼 기업의 미래는 어떠한 구성원들이 모여 어떠한 비전으로 이끌어 가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인재는 기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최종적인 요소이다. 올해에도 눈부신 에너지를 품은 신입사원들이 입사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꿈과 열정의 크기가 곧 우리 회사 성장의 크기일 테다. 이들이 만들어 온 과거와 현재가 모여 미래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으로 발전하여 아름다운 꽃이 되어 활짝 피우는 날을 기대해본다.





인재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히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키워드다. 인재를 선발·양성하고, 지속적인 인적자본(Human Capital) 축적을 통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함으로써 밝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고 구성원이 역량개발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인재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인사팀과 교육훈련팀 직원 4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모두의 성장을 향한 미래지향적 발걸음

Q. 우리 회사는 어떤 인재상을 그리고 있나요?

인사팀 강연미 과장 우리 회사의 사명인 'KCC'에 답이 있습니다. Knowledge(지식) · Challenge(도전) · Courage(용기)를 갖춘 인재만이 'KCC人'이라는 빛나는 수식어를 달 수 있고, 반대로 KCC人이라면 끝까지 이 세 가지 덕목을 추구해야 하죠. 기본에 충실하고 조직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전문지식을 가져야 하고, 뜨거운 열정과 창의력으로 도전하며, 정직함 · 사명감 ·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말하자면 'KCC가 KCC를 찾고 양성하는' 셈입니다.

교육훈련팀 천재명 차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¹⁾의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집단지성'입니다. 여러 사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융·복합과 혁신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협력과 조화를 이루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순 없기에 서로에게 배우려는 자세도 반드시 필요하죠. 나아가 우리가 회사가 추구하는 '정도경영'에 힘을 보태 조직과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어느 곳에서든 빛나는 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올해의 회사 조직 변화상과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인사팀 정찬호 과장 작년과 대비되는 조직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책임경영체계의 강화'인데요. 기존의 본부 중심 조직을 영업·기술·지원 등의 기능이 사업별로 분리 운영되는 사업부 조직으로 재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부는 사업부장을 중심으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되며, 그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사업부별 경쟁력 및 책임경영 강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가격·적자·채권 등의 권한을 영업소장에게 대폭 위임해 영업소 각자의 목표를 주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둘째는 '조직의 경직과 관료화를 막기 위한 팀제 조직의 전면적 실시'입니다. 기존의 부·과·조직은 단단게 계층 구조로 이뤄져 있다 보니 의사 결정에 속도가 붙지 않았고,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실무자가 부족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타파하기 위해 우리 회사는 수년 전부터 팀제 조직을 도입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체계가 단순해졌고, 신속하고 고객 친화적인 의사 결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팀제 조직의 전면적 실시로 이러한 방향성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직적 측면의 변화와 함께, 올해부터는 임원 및 팀장이 조직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과제 및 실험·거래선 개척·공정 개선 등의 직접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밀바탕을 마련하려 합니다. 한편 팀원은 조직 및 개인 목표 달성을 위해 직급에 상관없이 현장 위주로 실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능력에 따른 직책 운영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1) Digital Transformation : 비즈니스의 모든 단계에 IT와 데이터를 접목해, 비즈니스의 흐름 전반에서 기시성을 높이고 더욱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Q. 우리 회사의 인재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교육훈련팀 김운배 과장 앞서 살펴본 인재상과 사회적 트렌드에 따라 크게 네 가지 교육 중점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급별 역량 강화 교육을 들 수 있겠는데요. 신임 승진자를 대상으로 각 직급별로 요구되는 리더십과 역할에 대해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이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실무 현장에서 협력과 조화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본부별 실시해 왔던 직무과정을 사업부 조직으로 바꿔 따라 사업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과정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세분화 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게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회사의 글로벌화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온라인 어학과정과 전화외국어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외국어 과정의 경우 16년부터 시행해 왔고, 수강인원을 늘리고, 영어 외에도 해외사업장 주재국 언어를 추가하면서 임직원의 글로벌 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를 선도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기획·진행 중인데요. 작년 '파이썬²⁾'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과정을 개설했는데, 직원들의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심화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대를 선도하는 과정을 고민하고 고민하겠습니다.

Q. KCC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두 팀의 계획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교육훈련팀 친재명 차장 임직원들의 삶을 때릴(자극)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우리 팀의 영원한 이정표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변화의 폭과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 가고 있는 시대에 교육훈련팀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인슈타인이 “교육의 목적은 정보습득이 아니고, 사고를 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본질이다.”라고 했듯이 임직원들의 지발적인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주 52시간제 근무제 실시에 따라 교육시간도 이에 비례하여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임직원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원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상시 학습이 가능했던 기존의 래피드 러닝(Rapid Learning)³⁾을 더 발전시킨 마이크로 러닝(Micro Learning)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학습 문화가 전파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원 교육도 종전의 일방적 이론 교육은 스스로가 학습하고, 집체교육에서는 현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품군과 수많은 KCC 기술의 융·복합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돋는 것도 교육훈련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의 잠재력을 십분 발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팀 강연미 과장 올해 우리 팀의 중점 과제는 직무분석과 평가제도 개선입니다. 먼저 직무분석의 경우, 올해 신설되는 TFT를 통해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정리 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없애는 한편, 각 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한단계 끌어올리겠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도 전사적 관점으로 단순화·재정립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평가제도를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집단평가의 경우 평가항목을 단순화해 성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것이고, 개인 평가에서는 정량적인 기준을 뚜렷하게 설정하여 포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인사팀의 올해 목표는 책임경영체계 강화·유연하고 신속한 조직운영·업무 프로세스 개선·평가제도 개선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전사적 경영 목표 달성을 연결될 수 있도록 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 파이썬 : 빅데이터 분석툴의 하나로 머신러닝, AI와의 호환성이 높아 전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프로그래밍 언어. 1991년, 네덜란드 수학자 귀도 반 로섬에 의해 개발되었음.

3) 래피드 러닝(Rapid Learning) : KCC 제품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쌓을 수 있는 10~20분 내외의 온라인 컨텐츠

4) 마이크로 러닝(Micro Learning) : 학습정보가 노출되는 시간을 5분 내외의 짧막하게 쪼개 동영상 기반의 온라인 컨텐츠. 학습자가 필요한 한 가지 정보만 짧은 순간에 바로바로 습득하게 하는 고효율 학습법.





김태수



김태연



박태영



신지민



배선준



양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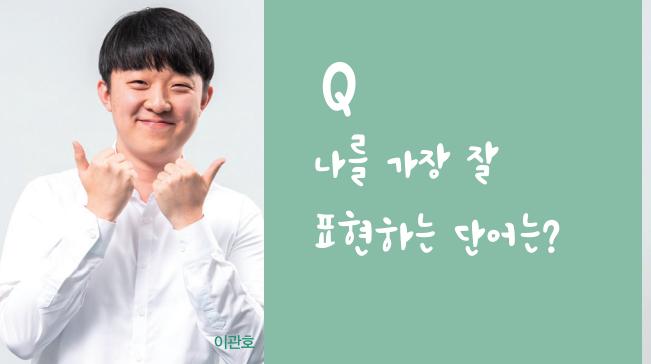
우리는 2020년 KCC 뉴페이스!

올해도 어김없이 KCC의 미래를 이끌어갈 푸릇푸릇한
인재들이 당찬 포부와 함께 들어왔다. 자신감과 통통 튀는
개성으로 무장한 신입사원들을 소개합니다!



문재원

박경수



Q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이관호



신혜연

안세명



박동현

박민석



서정인

오경탁



유요한

신보람



김태호

김효진



안남식

이상현



이재중

A 김태수 / 한 줄기 빛 – 꼭 붙잡아야 할,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
김태연 /?? – 반신반의했는데 합격해서 얼떨떨
문재원 / 두번체크 – 이메일 받고 못 믿어서 홈페이지에서 또 확인했어요
박경수 / 혁! 혁? – 너무 기뻐서 혁! 연수 전날까지 기말고사여서 혁?
박동현 / 정말? – 정신없고 그저 너무 좋았어요.
박민석 / 긴가민가 – 갑작스런 합격소식!
김태호 / 어늘이로 변신 – 합격 통보 받고 아버지께 횡설수설
김효진 / 반반 – 기쁜 마음 반, 두려운 마음 반
박상현 / 담담 – 졸업논문 때문에 정신 없었어요
박영진 / 소리없는 포효 – 목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지 않아 속으로만 와우~!!!!

Q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분은?

박상현

A 박태영 / 액체 – 담는 그릇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신
신지민 / 유쾌 – 이왕이면 밝고 재밌게!
배선준 / 평양냉면 – 맛볼 수록 계속 찾게 된답니다
양채원 / 카멜레온 – 다양한 환경에 적응 갑
이관호 / 보온단열재 – 남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신혜연 / 커피 – 없으면 허전해요!
안세명 / 진국 – 묵묵히 할 일을 하기 때문
서정인 / 실란트 – 어디든 잘 불습니다

오경탁 / 산소같은 남자 –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유요한 / 아메리카노 – 기본에 충실
신보람 / 소나무 – 항상 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합니다
이남식 / 엄마 – 친구들을 잘 쟁깁니다
이상현 / 뚝배기 – 긴 시간 끓는 뚝배기처럼 오래 지속되는 열정맨
이승준 / SCV(일꾼) – 필요하면 몸으로 나서는 SCV 같은 사람
이재중 / 거북이 – 느리더라도 페이스를 잊지 않고 달립니다



박영진



Q
어떤 KCC인이 되고
싶나요?



Q
간단한
나의 자랑



A 이재환 /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이종구 / 관찰력 정말 끝내줍니다!

이종욱 / 항상 웃고 있는 긍정왕이 바로 저니다!
이종혁 / 잘 버팁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제나 완주!
이해동 / 문화생활취미 부자입니다. 함께 해요~
이현수 / 친화력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친해져요~
이현욱 / 늘 적극적이고 반드시 목표를 달성합니다
최재현 / 사람 이름을 잘 외웁니다

임규성 / 오랜 타지생활로 낯선 환경에 적응 잘 합니다
전현욱 / 정직한 사람입니다. 믿고 맡겨 주세요!

정구현 / 잘 먹고 건강합니다!
정주현 / PPT 템플릿 디자인 맡겨만 주세요!
조선호 / 긍정적 태도로 항상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조성호 / 어떤 일이든지 빨리 배웁니다! 습득력 甲
최재현 / 사람 이름을 잘 외웁니다

A 고현재 / 정직하고 용기있는 KCC인
허정운 /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KCC인
허태원 /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KCC인
황동휘 /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무적의 KCC인
황일준 / 숫자로 증명해내는 KCC인
황현준 / 정직하고 소신있는 KCC인
권순재 / 정직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KCC인
권중규 / 책임을 다하는 KCC인

김기수 / 글로벌 기업의 토대가 되는 KCC인
김민석 / 열심히 하면서 잘하기까지 하는 KCC인
김병준 / 항상 신임받는 KCC인
김성규 / 남들에게 존중받는 KCC인
김준서 / 끊임없이 도전하는 KCC인
김준영 / 중간 이상 가는 KCC인
김지수 / 어떤 일이든 나서서 처리하는 KCC인

Close Up _ 2



Window Material

창호

예전부터 창호는 복이 들어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집을 지을 때 창호에 많은 공을 들였다. 현대에 들어서는 공간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며 기능은 물론 인테리어 요소로도 중요해졌다. 이번호에서는 '창호'를 특집으로 다루며 1994년 KCC가 창호에 첫 발을 내딛고 지금까지 만들어 온 길을 함께 따라본다.

Part 1. 정의/역사

[창호] 窓戸 windows and doors

명사

- (1) 건물 내부와 외부를 구획·차단시키기 위해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에 설치되는 창과 문을 총칭
- (2) 창은 일광·환기·조망에, 문은 사람의 출입, 건물의 반출·반입 목적에 쓰임

날로 우수해지는 창호 3 TOP 시스템

창호는 집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요즘 같이 계절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따른 창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창호에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성능은 벽체의 개구부에 설치하여 태풍과 비바람에 집을 지탱하는 벽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마철 폭우, 바람을 막아주고, 자동차 소음과 잡음 등을 차단해 준다. 겨울철에는 외부의 차가운 냉기를 막고, 여름철에는 실외에서 들어오는 복사열을 차단하여 실내를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유지시켜 줌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능이 열대성 기후 변화로 더욱 높이 요구되고 있다. PVC 창호는 소재 자체가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성, 기밀성, 방음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아파트 및 주택에서 선호되고 있다. 최근에는 PVC 창호의 컬러와 패턴을 래핑하여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PVC 창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에 고객납기에 주력하고 있다. KCC의 PVC 창호는 창호의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인 창틀, 유리, 실란트를 KCC 자체 기술로 직접 생산해 공급하는 '3 TOP' 시스템을 적용하여 높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 시켜왔다. 최근에는 에너지 위너상과 대한민국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창호 부문 한국사용품질자수 1위를 차지하는 등 PVC 창호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목창호부터 미세먼지 대응 창호까지

PVC 재질의 플라스틱 창호는 1950년대 초 독일의 Hoechst 사에서 상품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1976년에 국내에 소개되어 90년대 후반 IMF 이후 내풍압, 단열강화에 따라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국내 창호제의 변천사를 보면 1세대라 할 수 있는 목창호로 시작하였으며, 습기에 약한 목창호는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주택가량 사업의 활성화로 알루미늄으로 대체되었다. 80년대가 되면서 단열성능이 우수한 PVC 창호가 등장하였고, 90년대에 들어서는 내풍압성, 수밀성, 단열성, 기밀성, 방음성, 디자인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2000년대부터 주거문화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창문의 외관, 기능 및 형태도 꾸준히 발전해왔다.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시스템 창호, 블라인드 내장형창호, 방범창호, 발코니이중창 등 기능성 창호가 시장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부로드맵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새로운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2017년 노원구 제로에너지 실증단지에 시스템창호를 적용하였으며, 단열성이 좋은 국내 최초 패시브형 창호를 개발하여 시장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하이브리드환기창, 미세먼지 방충창 등 실내 환기 및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창호제품이 출시되었으며, 미래형 스마트홈에 요구되는 방범, 환기, 전동, 차양, 스마트 핸들 등이 창호와 융·복합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을 한층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또 하나의 트랜드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Part 2. 사업장소개



전주1공장 PVC 사일로(Silo), PVC수지 저장 및 이송에 사용된다.

창호의 본산! 전주1공장

전주1공장은 PVC창호 제품 생산으로 출발해 현재는 AM(금속접합용 세라믹), DCB(구리접합 기판 세라믹) 등 첨단 소재까지 아우르고 있다. 특히 국내 창호 시장의 변화와 역사를 함께 해 온 KCC 창호의 본산이다. 환경표지 및 패시브 인증을 받으며 에너지 세이빙 친환경 기술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전주1공장의 뜨거운 현장을 찾아보았다.

창호재 시장에 일으킨 새바람

전주1공장은 1994년 4월 24,400평 규모의 현 완주산단에서 준공했다. 이는 판유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창호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PVC창호재사업으로 진출하게 된 것이었다. 압출기 14대와 생산능력 14,600톤의 PVC 창호재 상업 생산 체제를 갖추고, 창호재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전주1공장은 준공하자마자 '금강PVC사사'를 선보였다. 당시 금속계, 알루미늄계 창호재가 대세를 이루던 창호재 시장에 금강PVC사사의 등장은 신선한 새 바람을 일으켰다. 이후 전주1공장은 창호 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발전을 거듭해왔다. 가장 큰 변화의 기점은 2005년. 이때 밸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단창을 사용하던 밸코니창의 트렌드가 단열성을 강화한 이중창으로 바뀌었다. 이에 시장의 수요도 증가했고, 전주1공장은 압출라인에 고속듀얼(dual) 1대와 고속 9대를 추가해 36대의 압출라인을 갖추면서 생산 능력을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

2006~2010년 사이에 이중창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하부는 픽스를 구성하고 상부만 슬라이딩하는 입면 분할 구조를 개발 적용했다. 그 다음은 밸코니 이중창에서 기능성 창호로 특화되기 시작했다. 2010년에 PVC재질의 커튼월 구조 및 2013년에는 복합재질 창호를 적용하면서 외관의 고급화를 선호하는 트렌드로 변화했다. 또한 유통시장의 확대를 위한 와이드빌, 리모델링 창호 등이 시장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4년에는 Pb-free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면서, 100% 친환경 원료로 교체했다. 이에 따라 압출온도 변화, 스피드 등 생산 공정 조건을 최적화했다. 덕분에 친환경 창호를 앞세워 시장을 분할하려는 경쟁 사로부터 시장을 지켜낼 수 있었다.

패시브 시스템 창호를 선도하는 친환경 사업장

전주1공장 PVC창호는 이렇듯 시장의 변화에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생산성 좋은 설비를 증설하는 등 적극 대응하면서 줄곧 성장 그래프를 그렸다. 2017년에 최대 94,000톤 생산을 기록했고, 최근 2개년 평균 연간생산량 75,000톤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KCC는 창호의 세 가지 핵심 구성요소인 창틀, 유리, 실란트를 모두 갖추고 있어 압도적인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단열, 기밀, 수밀, 내풍압, 방음성 등을 종망라한 제품 설계 기술을 구축하여 최고 품질의 제품과 창호시스템을 창출했다.

"최근 전주1공장의 가장 큰 이슈는 패시브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관련 이슈와 함께 정부 정책적으로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요구와 기준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이에 발맞춰 전주1공장에서는 패시브 시스템 창호 개발과 더불어 2018년에 국내 최초로 패시브제로 연구 건축연구소에서 '패시브 시스템 창호 PH 인증'을 받았습니다"라고 전주1공장 창호개발 신석필 차장이 설명했다. 전주1공장에서는 이미 2018년부터 패시브형 고단열 구조 개발에 주력하면서 고기능성 이중창을 개발하는 등 일자리창출에 세이빙에 탁월한 고단열 제품군을 갖춰왔다. 컬러 창호, 유리난간 이중창, 미세먼지 방충시스템,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 창호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창호 라인업을 갖추고 ISO, 환경마크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또한 미래형 스마트홈에 요구되는 방범, 환기, 전동, 치양, 스마트 핸들 등 IoT창호 요소기술 확보를 통해서 거주자의 편의성, 쾌적성, 안전성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한층더 향상시켜 미래시장의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녹색성장실천 우수기업 환경부 장관상을, 2012년에는 자원순환 선도기업 환경부 장관상수상, 에너지 위너상과 대한민국 에너지 대상까지 수상하며 친환경 사업장의 위상을 드높였다.

프로파일 생산시 표면보호용 필름 부착



입출라인에서 프로파일 형상, 치수 검사

고객중심의 업무개선으로 100% 납기 준수

시장을 선도하는 KCC 창호의 가장 큰 차별점은 균일한 원료 사용으로 균일한 품질을 생산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전주1공장에서는 정기적으로 대리점 경영진 및 실무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노하우를 제공하며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들은 모두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제대로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현재 전주1공장의 가장 큰 화두는 제품을 적기에 제대로 공급하는 '납기 대응'이라고 한다.

"공장에서 프로파일(창틀 비)을 생산하면 가공대리점에서 원제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현장에서 개구부에 설치하는 시공이 되어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창호 완제품이 됩니다. 이처럼 창틀, 창짝 등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하나로 합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기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PVC생산부 정대영 차장은 영업의 요청량을 어떠한 돌발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업무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전주1공장은 '고객 중심'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창호부문 한국 사용품질 1위, 2014년 '한국산업브랜드파워' 창호재 부문 1위 브랜드 선정 등 KCC PVC창호 제품의 우수성을 각인시켰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원칙과 함께 국내 주거문화를 선도해 나갈 기대한다.



목무니 필름을 롤러로 압착해주는 랩핑 공정

Part 3. 제품 및 공정

에너지 잡는 솔루션 패시브 창호

건축물에서 가장 열 손실이 많은 부분이 창호라는 점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KCC 패시브 창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패시브인증인 'PH Z1' 등급을 획득한 패시브 창호 두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 패시브창호는 에너지 제로 건축물, 재건축 조합, 고급형 타운하우스, 패시브형 및 에너지 제로형 주택들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고밀착 슬라이딩(Parallel Sliding) 시스템 창호 – IBF225Z



한국형 슬라이딩 시스템 창호인 'IBF225Z'는 개폐 시 창짝 4면이 완벽하게 밀착되는 고밀착 슬라이딩 작동 방식의 특수 하드웨어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황사 등 차단 효과는 물론, 빛과 유입을 방지하는 수밀성¹⁾과 기밀성²⁾, 단열성능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슬라이딩 형식의 미서기 창호는 개방감이나 환기량에서는 유리하지만, 레일 위에 창호가 얹어지기 때문에 기밀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여닫이 시스템 창호는 기밀성은 우수하지만 앞뒤로 개폐되기 때문에 내부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다. 때문에 이 제품은 시스템 창호의 밀폐 효과와 미서기 창호의 슬라이딩성을 복합한 수평 밀착형 개폐 방식을 적용, 2가지 장점을 결합해 기밀 성능과 사용 편의성을 최대한 발현했다. 광폭 프레임(225mm)과 다중 챔버 구조로 단열 성능을 향상했으며, 외부 마감 커버로 유리 삽입부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외관성과 기밀성도 향상되었다. 최대 54mm 유리도 적용 가능해 에너지절감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프로파일³⁾에 고무 재질의 가스켓⁴⁾을 접착시켜 수밀성과 기밀성을 높였으며, 또한 이중 계단식 배수 구조로 배수 기능은 향상되고 수밀성은 증대된 제품이다.

- 1) 수밀성 : 물이 실내외 압력차에 의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성능
- 2) 기밀성 : 실내외로 유입되는 냉온공기를 차단하는 성능. 기밀성이 높을수록 겨울철 난방효율 높음
- 3) 프로파일 : 창호 원제품을 만들기 위한 청틀, 창짝 등 압출된 바(Bar)의 형태
- 4) 가스켓(Gasket) : 청틀, 유리 등의 접합면에 밀폐를 목적으로 끼우는 합성 고무 재질의 패킹



TILT & TURN 시스템 창호 – MBR88Z

유럽형 개폐 방식의 'MBR88Z'는 환기와 개폐 기능을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환기&여닫이 시스템 창호다. 핸들 작동 한 번으로 창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틸트(Tilt) 모드와 안쪽으로 활짝 열 수 있는 턴(Turn) 모드 등 두 가지 방식으로 개폐가 가능하며, 고강도의 매립형 경첩을 사용하여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을 향상시켰으며, 외관 성과 기밀 성능 또한 탁월하다.

세부적으로는 광폭 프레임(88mm)과 다중 챔버 구조, 3중 유리로 기밀성과 단열성을 향상시켰다. 외측에 알루미늄 커버링을 통해 건축물의 외관과 조화롭게 연출할 수 있으며, 다각실 구조 프레임으로 단열 성능을 높였으며 경첩을 매립해 모던한 디자인에 세련미까지 더한다.

창호와 함께 시공하는 유리 역시 중요하다. 이 제품은 고성능 Low-E 3중 유리를 적용해 쾌적감 향상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특히 창틀과 유리 사이에 가스켓을 공압출 생산방법으로 프로파일에 부착해 기공성 및 단열성을 증대시켰으며, 이음매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으므로 외관성은 물론 기밀성 및 수밀 성능도 향상 시켰다. 또한 얇은 프로파일로 프레임을 최소화한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보다 더 넓은 외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패시브창호, 이렇게 만듭니다!

Step 1 원료 투입&배합



주원료인 PVC 수지 및 충격 보강재, 백색 안료, 안정제, 충진제 등의 원료가 정확한 계량을 통해 배합된 후 가열믹서와 냉각믹서를 통해 균일하게 분산 혼합된다.

Step 2 압출



배합된 원료가 압출기에 공급되면 히팅 열과 스크류의 전단력을 이용해 실린더 내에서 원료를 가소화(연화) 혼련하며 스크류로 압출된다.

Step 3 성형&냉각



압출기 내에서 용융된 원료가 금형의 형상 및 커리와 함께 제품 형태를 형성. 성형 및 냉각 단계를 통과하면서 표면이 매끄럽고 정확한 창호 형성이 형성된다.

Step 4 인취



압출기와 동일한 속도로 제품을 잡아 당겨 제품의 형상을 유지하며 제품을 이동시켜 준다.

Step 5 절단&적재



필요한 길이에 따라 프로파일을 절단하면, 제품이 한 곳에 적재된 후 포장 또는 2차 가공을 하게 된다.

Step 6 2차 가공



컬러링, 라미네이팅 : 완성된 프로파일에 2차 추가 공정을 통해 라미네이팅 코팅을 해 컬러 제품을 만든다.

Part 5. 인터뷰

상생과 협력 신뢰와 성장

고려창호와 KCC

20

2008년 12월 고려창호 법인이 설립되었다.
그 다음해인 2009년 KCC 대리점으로 설립
초창기부터 KCC의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이후 꾸준한 동반성장을 이루어 오며 어느덧
10년의 세월을 훌쩍 넘겼다. 건설 시장의
유동적인 경기 변동에도 변함없는 파트너십이
눈부시다.



(왼쪽) KCC 서울영업소 창호영업팀 백성욱 대리, (오른쪽) 고려창호 최상기 대표



단단한 내부 결속력, 든든한 외부의 지원

현재 고려창호는 KCC와의 협업으로 수주하는 사업도 많지만 건설사 협력업체 등록으로 자체 수주하는 건설사도 상당하다. 창호 대리점 매출의 선두주자로서 자부심 또한 상당하다. 회사의 조직력과 영업적인 인프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어우러진 성장이다. 특히 자체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는 고려창호 성장의 일등 공신이다. 최상기 대표의 축적된 현장관리 노하우를 전산으로 구현해 실무에 가장 적합한 ERP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지기에 내부 프로세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된 기량을 내뿜을 수 있다. CS 팀을 별도 구성하고 있는 것도 고려창호의 강점이다. 하자보수 기간이 3~5년으로 짧지 않기에 CS 현장은 최소 연 80여 개가 운영되고 있고 즉각 대응이 되는 만큼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공정관리부터 영업, CS까지 총 7개의 팀은 각각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상호 소통하며 대응하지만 상황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유연함도 갖추고 있다. 창업 이후 가장 어려웠던 2017년도의 경우 인력도, 자재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전 직원이 현장에 투입되어 하자보수를 진행하기도 했다. 고객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에는 주말이나 밤낮 구분도 무의미했다. 최상기 대표는 누구보다 먼저 입장서서 현장에 녹아들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위기를 딛고 일어서려는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주춤했던 성장은 다시 이어졌고 2020년 역시 성장이 기대되는 한 해다. “건설 시장이 좁아지고 있는 만큼 시선을 돌려 새로운 건축시장 진입으로 매출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의 세월이 그랬듯 앞으로도 KCC와 함께 할 거라 믿습니다. KCC의 시장이 커질수록 고려창호 역시 온 힘을 다해 앞으로 10년, 20년 더 나아갈 겁니다.”

우수한 제품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유대

단열, 내구성, 인테리어적 요소까지 창호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최근 일산의 신축 현장에 적용된 KCC 뉴하드원 창호는 알루미늄의 내구성과 PVC의 단열성을 모두 갖춘 하이브리드 형태의 알루미늄 PVC창호다. 최근 변화되는 건축시장의 단열제품 수요와 미적요소를 부각한 고기능 제품으로, 커튼월(Curtain Wall) 형태로 입면을 구현하고 원하는 도장 색을 입혀 단순한 창을 넘어서는 미적 요소까지 갖추었다.

KCC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세종시 3천 여 세대, 남양주시 3천 여 세대, 평택시 2천 여 세대 등 다양한 현장 수주에 성공하였고, 2019년도에는 약 530억 원(잠정치)의 매출을 올리며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연간 2만 세대 이상의 창호를 책임졌다. 매년 최소 10%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2020년 역시 숨가쁘게 움직일 예정이다. 개포동 재건축 현장, 신림동 재건축의 여러 현장에 KCC LS 시스템 창호와 최고급 유리사양인 KCC 더블로이유리를 적용한 공사가 곧 시작된다.

고려창호와 KCC의 인연은 1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KCC와 고려창호가 협심하여 상당기간 수주가 없었던 신규건설사 진입을 시작으로 거래의 첫 물꼬를 틔고, 이어 재개발 재건축 계약을 협업으로 이루어 낸 끝에 이후로 양사의 인연에 단단한 신뢰가 생겨났다.

“고려창호는 건설사에서 요구하는 Q마크, 창호 기술 특허, 환경인증 등의 경쟁력을 갖추면서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도 발빠르게 반영합니다. 이에 KCC창호는 고객사를 넘어서서 실제적인 최종소비자의 입장에서 봐도 성능이 탁월합니다. 창호는 반영구적이라 내구성과 강도가 가장 중요 한데 테스트 성능 기준 가장 우수합니다.” 고려창호 최상기 대표는 오랜 파트너십의 첫 요인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꼽았다. 지속적인 소통과 긴밀한 유대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KCC 서울영업소 창호영업팀 백성욱 대리는 “고려창호의 발전은 곧 저의 발전이고 회사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고 감사의 인사를 건네자 고려창호 최상기 대표는 “건설사에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KCC에 오히려 감사하다”고 웃음 섞인 인사를 돌려주며 “메이커가 미치는 평판이 큰 만큼 KCC가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며 계속 입장서 준다면 그 뒤를 탄탄하게 받치며 함께 가고 싶다”는 상생의 의지를 드러냈다.

주식회사 고려창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36
전화: (02) 525-0983
www.goryeo@goryeo-fittings.co.kr





‘항구의 방패’에 단단함을 더하다

부산 신선대 준설토투기장 호안 태풍피해 복구공사 현장

2016년 태풍 ‘차바’에 피해를 입은 부산 신선대 준설토투기장 호안이 한층 강한 모습으로 재탄생한다. KCC건설이 작년 4월 태풍 피해 복구공사를 수주,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 것이다. 자연재해와 파도로부터 항구를 지키는 튼튼한 호안, 그 중심에는 박재성 소장과 현장 직원 7명이 있다.

피해 복구를 넘어선 보강 공사

우리나라를 거쳐 가는 태풍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2.9개에 불과하던 영향권 태풍이 2018년 5개, 작년 7개로 크게 늘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태풍의 크기와 강도도 날이 갈수록 커지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전문가들이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항구의 방호시설 정비 및 보강에도 비상이 걸렸다.

KCC건설이 작년 4월 수주한 부산 신선대 준설토투기장 호안 태풍피해 복구공사(이하 신선대 호안복구공사)도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2016년 9월 말 북상한 태풍 ‘차바’는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최대 풍속으로 이곳 호안에 상당한 피해를 남겼다. 이듬해 응급복구공사가 진행 됐지만 점점 더 강력해지는 태풍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호안 구축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따라 KCC건설의 신선대 호안복구공사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 더욱 단단한 호안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태풍에 파손되고 유실된 호안 정리와 함께 지반 개량 공사를 재시공하고, 그 위에 소파블록을 한 겹 더 쌓음으로써 앞으로의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호안을 만들어 가는 것. 공사가 완료되면 신선대 호안은 폭이 기존보다 10m 넓어지고 높이도 1m 이상 올라간다. 호안 완성과 함께 부산항과 신선대 준설토투기장의 안전성이 한층 업그레이드됨은 물론이다.



부산 신선대 준설토투기장 호안 태풍피해 복구공사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신선대 준설토투기장 호안
- 공사기간 : 2019년 4월 ~ 2022년 4월(36개월)
- 공사규모 : 준설토투기장 호안 547m
- 공사내용 : 기초공 제거 및 복구, 부대공, 보강공
- 발주처 : 부산항만설사무소



자동화기록장치 확인



소파블록 검측

지반 개량 공사의 일등공신, '자동화 기록 장치'

수주 후 4개월여의 준비를 걸쳐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뜯 이곳 현장은, 공사 용 등부표 및 오트방지막을 설치한 데 이어 지반 개량 공사가 한창이다. 해저에 평균 높이 11m의 원형 시멘트 기둥을 줄지어 세워서 호안을 지탱하는 지반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는 기초공사다. 이때 물에서 만들어진 기둥을 가져다 심지 않고, 해저에 기둥 높이의 구멍을 뚫고 시멘트를 분사함으로써 바닷속에서 직접 기둥을 만드는 '고압분사시멘트물탈중 전공' 공법을 쓴다. 그러다 보니 바닷속 작업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곳 현장은 '자동화 기록 장치' 도입을 통해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했다.

"자동화 기록 장치는 '지반 개량 공사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대신, 이 장치에 기록된 각종 수치를 통해 공사 완성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천공 속도 및 높이, 시멘트 주입량 및 주입 압력 등을 그래프로 기록해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공사 감독도 가능하고, 만에 하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도 비교적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죠."

자동화 기록 장치는 시공 품질뿐만 아니라 공사 효율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검측 시간 단축, 자재 및 장비 과투입 방지로 작업 능률이 30% 이상 높아진 것. 이곳 현장이 수시로 변하는 해양성 기후에도 불구하고 지반 개량 공사 기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공사팀 현장 점검

미래 호안복구공사 수주의 초석을 다지다

지반 개량 공사가 끝나는 3월 이후부터는 유실된 기존 호안을 정리하고 그 위에 새로운 호안을 쌓는 공사가 이어진다. 잠수부가 직접 투입돼 바닷속에 가라앉은 부속물과 형태를 직접 확인하는 한편, 크레인으로 이를 안전하게 건져 올려야 하기에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한 공정이다. 따라서 박재성 소장과 현장 직원들은 매 작업 전 근로자들의 보호 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각 종장비의 상태 점검 및 기상 상황을 살펴보는 과정을 꼼꼼하게 챙긴다. 박 소장이 평소 가장 강조하는 덕목도 바로 안전이다.

"초반에는 직원들이 뱃멀미로 고생하는 등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험 이 차후 비슷한 공사를 수주하고 성공적으로 준공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 현장이 좋은 선례로 남고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은 2년을 충실히 보내겠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얘기다. 선제적인 기술 도입과 각고의 노력으로 첫 발을 잘 뗀 만큼, 앞으로의 남은 공정이 성공리에 진행될 전망이다. 박재성 소장과 7명 직원들의 손끝에서 탄생할 호안의 든든한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호안 안전시설 및 규준들

깜짝 선물로 내딛는 '건강한 2020년'



새해 소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강'이다. 몸이 튼튼해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열심히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바람은 신선대 호안복구현장 직원들도 매 한가지다. 하지만 외지에서 와서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일하다 보니, 자칫하면 잔병치료를 하기 쉽다. 건강에 이상이 없는 평소부터 몸을 돌봐야 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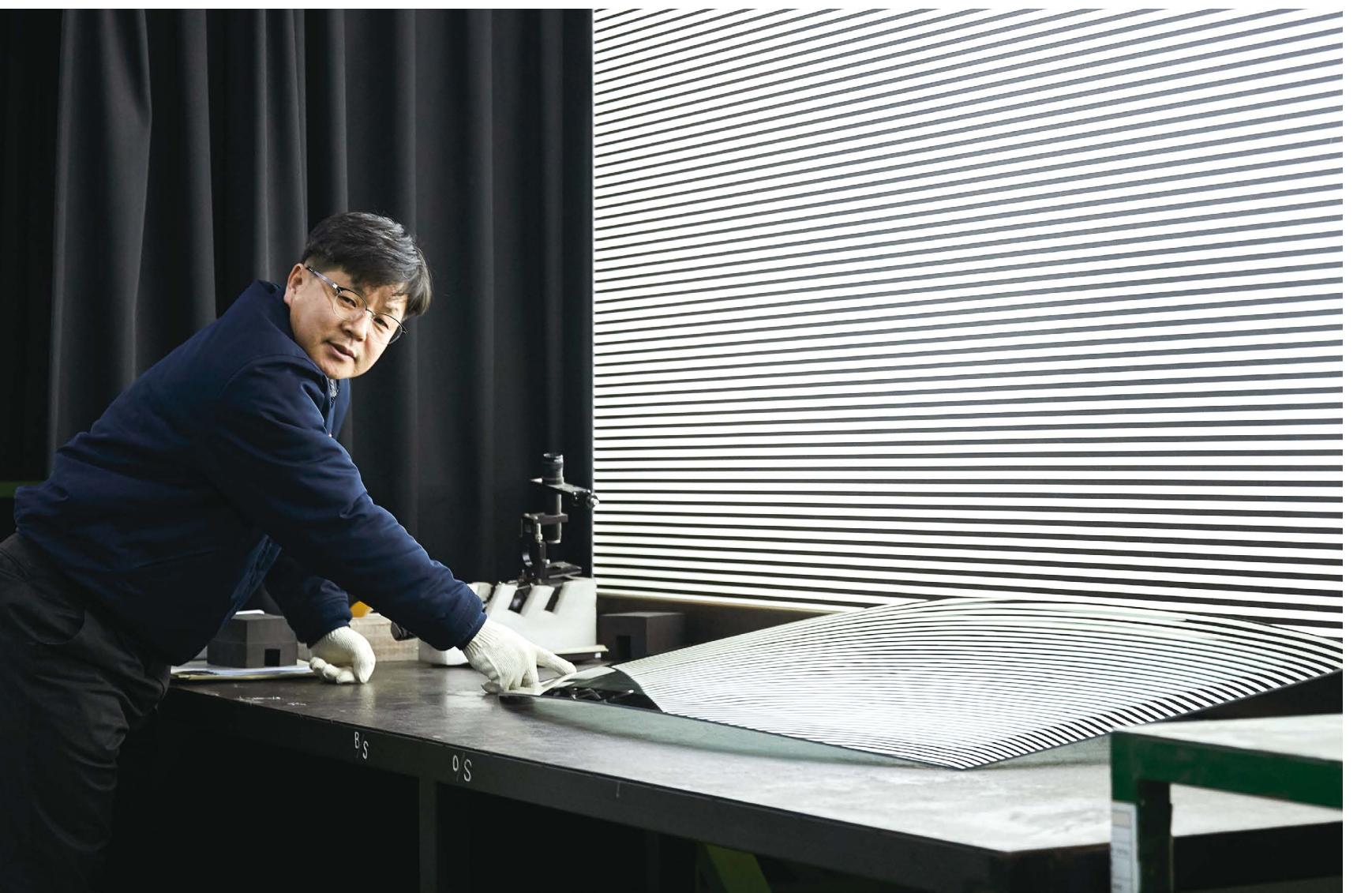
여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박재성 소장이 나섰다. 하루 한 알로 필수 영양소를 챙길 수 있는 종합영양제를 새해맞이 선물로 준비한 것이다. 바지선 위에서 맞이하는 깜짝 이벤트다 보니 놀랄과 기쁨이 보통 때보다 한결 크다. 박 소장의 세심함에 감동한 직원들 얼굴에 건강한 함박웃음이 깃든다. "공사가 끝나는 2022년까지 잘 부탁합니다!" 박 소장의 말에 모두가 영양제를 흔들며 한목소리로 외친다. "건강한 몸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을 지키며 묵묵히 걸어온 자동차유리 인생 30년

KAC 생산2팀 SR과 임성순 기장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종사하면 우리는 그를 '전문가' 혹은 '베테랑'이라 부른다. 임성순 기장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근면과 성실, 정직, 주인정신을 철칙으로 유리 분야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임성순 기장. 그의 마음은 회사에 대한 애정, 일에 대한 열정, 한길 인생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물두 살에 만난 소중한 인연

임성순 기장은 1987년 KCC 여주공장에 입사를 하면서 '유리 인생'에 발을 내디뎠다. 그의 나이 스물두 살이었다. 입사 후 선배들은 그에게 '직장생활은 단기간에 승부가 나지 않기에 길게 보고 가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임성순 기장은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뒤통수 보면, 더욱 가슴 깊이 남는 말이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집안형편이 많이 어려웠어요. 친구들이 대학에 갈 때 저는 건설 현장으로 아르바이트를 다녔죠. 그때 도로 포장하는 일을 맡았는데, 어느 날 산을 깎아서 운동장처럼 조성을 해놓은 곳이 있길래 올라가봤어요. 그로부터 2년 후에 여주공장으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 2년 전 제가 올랐던 바로 그곳이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죠. '나와 인연인 곳이구나'라고."

임성순 기장은 입사해서 5년 동안 뒷유리 파트에서 근무하다가 조장 임무를 맡게 되면서 옆유리 파트로 옮겨 15년을 근무했다. 현재는 2공장의 원재료부터 생산 및 출고, 품질 및 인원 관리 등 생산의 모든 면을 총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장으로 승진하는 좋은 소식도 있었다.

"생산부는 다양한 파트를 경험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강화유리 설비를 두루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 베테랑이 되었으니까요. 기능적 사원으로 입사해 관리직 사원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가족과 친구들이 이를 인정해주고 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때 저 또한 큰 기쁨을 느낍니다."



기본을 지키며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힘든 고비도 있었다. 2012년 3월 도입한 EPB(External Press Bending)가 안정화가 안 돼 어려움을 겪었던 것. EPB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생산하는 데 특화된 설비로, 그 당시 국내에서는 낯선 설비였다. EPB 도입 후 설비가 안정화될 때까지 난항을 겪어야했다. 임성순 기장은 EPB의 정상 작동을 위해 밤낮으로 설비 분석에 매달렸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새로운 설비 조건에 맞지 않았던 거죠. 설비 수퍼바이저들이 함께 고민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 다행히 저희 자체적으로 온도 컨트롤 등 EPB 설비의 조건을 짐았습니다."

임성순 기장은 업무에서 '기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면과 성실, 정직, 주인정신은 그가 지켜온 철칙이다. 또 그는 직원들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5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SR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일년에 두 번 워크숍을 진행하고, 업무 진행 중에는 사소한 것 하나도 직원들과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나간다.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IMF나 미국발금융위기 등의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회사와 함께 저 또한 성장해올 수 있었기에 보람을 느낍니다. 일하면서 후배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소속감을 기질 것. 그리고 높아져만 가는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다면 개인인이 발전할 수 있고, 회사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동차산업의 위축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럴 수록 뜰뜰을 뭉쳐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임성순 기장. 그는 그 일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그리고 신규 개발 제품에 대비해 설비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덧붙였다. 언제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그의 내일에 더 큰 성장이 이어지길 바란다.





KCC건설 스위첸, 2019 광고제 수상 싹쓸이

2019년을 뜨겁게 달군 스위첸 '엄마의 빈방' 캠페인

KCC건설은 지난해 11월 '2019 대한민국광고대상'에서 '엄마의 빈방' 캠페인을 통해 동영상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또한 금년 1월 7일 '2019 서울영상광고제'에서 비TV부문 금상을 차지하면서 명실상부 올해의 광고로 2019년을 뒤흔들었다. 광고계의 최고 권위 상인 '대한민국광고대상' 그리고 광고인은 물론 대중의 마음까지 사로잡아야 하는 '서울영상광고제'의 석권은 KCC건설만의 광고가 갖는 가치를 재확인 시켰다. 한 편의 단편영화 같은 KCC건설 스위첸의 '엄마의 빈방'은 유튜브 조회수 약 1800만 뷰(View) 히트를 치며, 2019년 최고의 인기 광고 중 하나로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엄마의 빈방'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

'엄마의 빈방' 캠페인 비하인드 스토리

2019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엄마의 빈방' 캠페인은 출가 후, 오랜 만에 찾아간 엄마집(독립하기 전에는 '우리 집'으로 불렸을)에서 경험한 에피소드에서 출발했다.

자녀가 독립하고 나서도 아들, 딸이 쓰던 방을 비우지 못하고 매일 쓸고 닦는 엄마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는 '광고를 본 모든 사람이 부모님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 하도록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장장 5개월의 인고 끝에 탄생했다. 항상, 사회에 과감한 이슈를 던지는 캠페인으로 단련이 된 스위첸이지만 이번 캠페인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했다. 처음으로 시도한 60초, 90초의 장초수 콘텐츠인데다 다양한 스토리가 시간의 흐름으로 이어진, 단순히 광고라고 하기보다는 짧은 드라마에 가까운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이다. 온에어 되는 그 순간까지 모두를 긴장하게 한 "과연 통할까?"라는 의문…

사람들의 마음에 파장이 일어났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반응이었다.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세상에, 내가 광고를 찾아서 보다니…',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난다' 등, 저마다의 이야기를 서로 공유했고, 수많은 매체에서 캠페인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졌다. 모델 효과 없이 광고의 내용만으로 소비자들의 댓글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엄마의 빈방'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은 1700개를 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으며, 금번 캠페인을 다룬 각종 SNS 기사에는 2000여 개의 댓글들이 달리는 등,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모여 스위첸을 응원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정말 뿌듯해지는 순간이었다. '엄마의 빈방' 캠페인의 성공은 각자의 역할에서 하나의 팀워크로, 오직 좋은 광고를 만들겠다는 공통된 목표 아래 서로의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의 등장과 그 화려함을 부각시키려 애쓰는 여느 건설사들의 광고와는 다른, '집'에 대한 새로운 생각 그리고 가족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화두를 던지는 KCC건설 스위첸. 다음 캠페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대중과 소통하고 공감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겨울의 찬바람이 더욱 매섭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 연탄으로만 따뜻한 봄날이 오길 기다리는 취약 계층의 이웃이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온기를 나누기 위해 166명의 KCC건설 본사 및 건축, 토목 현장 임직원이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나섰다. 1월 9일부터 10일 까지 이틀간 약 288가구에 총 40,350장의 연탄을 부산광역시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선물하였다. 돌아오는 길, 몸이 고된 만큼 마음 속은 연탄처럼 따뜻했다.

글. 안전보건부 김도현 대리

부산에 전하는 따스한 온기 KCC건설 연탄나눔 봉사활동 현장



연탄 한 장의 소중함

부산의 겨울 바람은 오늘 따라 기세등등하다. 그리고 눈 앞에 쌓여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연탄은 아찔하기만 하다. 하지만 KCC건설 임직원들은 좋은 일에 동료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 기분 좋다며 밝은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30여 년 전만해도 연탄과 쌀, 김치만 있으면 겨울 걱정 없다고 했다. 집집마다 창고에 쌓아놓은 연탄은 풍요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도시가스에 자리를 내주었다. 아무리 도시가스가 곳곳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여전히 연탄으로 겨울 난방을 해결하는 집이 부산광역시에만 해도 1,000여 가구나 된다. 이 중 대다수는 연탄 구입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이다. 게다가 부산 지역의 특성상 고지대와 좁은 골목이 많아 보니 연탄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배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러한 곳에 우리들의 손길이 긴급 투입된다.

꼬불거리는 길에도 문제 없이 배달 완료!

매년 진행되는 연탄봉사활동에 지게가 익숙하지만 연탄을 깨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양도 줄어든다는 말에 조금은 조심스러워진다. 혹시라도 떨어뜨릴까 하리를 숙이고 조심조심 걷는데, 처음부터 난코스가 등장한다. 오르막길이이다. 괜히 하리를 더 숙여본다. 간신히 올라가니 이번에는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다.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딱 주고 꼬불거리는 작은 골목들을 지나니 어느새 연탄 창고에 도착한다. 이렇게 오고 가길 여러 번. 연탄의 무게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에도 완벽히 적응하여 어느새 발이 빨라진다. 이번 봉사에 처음 참여한 신입사원은 “신문 등 언론에서 매년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하는 KCC건설의 모습을 보며 나도 KCC건설에 입사하면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는데 동참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참여하게 됐습니다!”라며 얼굴에 묻은 검은 연탄재도 상관없다는 듯 해맑게 소감을 전한다.

연탄은 무게가 3.65kg이라서 흔히 우리의 체온인 36.5°C에 비유되곤 한다. 연탄나눔 봉사활동은 그야말로 사람의 온기를 이웃에 전하는 따뜻한 활동인 것이다. 2014년 1월부터 올해까지 총 7회에 걸쳐 이어온 연탄나눔 활동.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함께 영위하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KCC건설이 앞장 설 계획이다.



Big-Y편

미네랄을 생산성 향상의 주역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김천공장

매년 각 공장을 대상으로 열리는 우수혁신과제(Big-Y) 경진대회. 지난 2019년 건재부문은 김천공장의 손에 들어갔다. 총 8명으로 구성된 김천공장팀은 끊임없는 관찰과 집요함으로 미네랄을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그 영광의 주역들을 소개한다.

김천공장 우수혁신과제 경진대회 출전 과제는 '미네랄을 #1호 기 Bottle neck 공정개선으로 생산성 증대'. 보온단열재기술 김태훈 사원의 안내에 따라 경진대회 내용과 후기를 들어본다.



김천-보온단열재기술
김태훈 사원



김천-보온단열재기술
채민성 차장



김천-전기과
고락선 과장



김천-MW생산과
정원식 과장



김천-MW생산과
김유경 대리



김천-전기과
고락선 과장



품질보증팀(김천)
최종수 과장



김천-MW생산과
최정규 사원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여기는 바로 김천공장입니다.
저를 포함한 2019년
우수혁신과제 경진대회
건재부문 대상 수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죠.



우리가 만드는 세계 1등 공장
● 우리 MBB 채민성 차장님 발견!
인터뷰가 필요하겠군요.
제가 쓸쩍 다가가 보겠습니다.

차장님,
인터뷰 좀
해주세요!

미소유지
^^

- 보온단열재기술 채민성 차장
- Master Black Belt(6시그마 전문가)

아하!

선박용 미네랄을 시장침체에 따라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품종 다양화를 통한 신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있었고, 저생산성 미네랄을 품종인 방화문 판넬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정비 절감을 위하여 저생산성 품종에 대한 생산성 증대가 필요해졌지. 그래서 이번 과제를 진행하게 되었어.

이해(완)(완)

이러한 과제 수행 배경으로 시작해서 김천공장은 무엇이 개선되었을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 해주실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원식 과장님! 인터뷰 좀 해주세요!

파워당당

• 경진대회 과제의 리더!
김천 GW_CFS 생산과 정원식 과장

이 모든 것을 개선하여 생산성이 증대했습니다!
와우~!!!!

미네랄을 원료 용융액 출탕량 증대, 큐링오븐 세척방법 개선과 열풍 누출 부위 개선을 통한 열풍손실 제거, 쿨링존 길이 증대, 그라인딩 머신 분진배출 석션 후드 개조를 통한 라인스피드 증속, 로보트 동작 최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빠르다!

手掌회를 표현한 두손

팔끔하다!

화들짝

앗! 마침 지나가는 우리의 김유경 대리님! 우리 잠깐 이야기 좀 나눠요~ 과제를 진행하면서 느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뭐…뭐야?

그럼 전 바빠서 이만

부끄 부끄

(부끄러워도 할말은 다 하는 넘자)

음…저도 이번 과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결과도 잘 나와 뿌듯하기도 했고요. 덕분에 공장에 대한 애착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김천공장은 끝없는 도전정신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렇게 멋진 보상을 받았답니다~ (Feat. 상폐, 우승기, 상금)

화들짝

실패

호다다

우승

2020년 우수혁신과제 경진대회 대상도 김천공장
합심해서 다시 한번 대상의 영광을 차지하겠습니다.

대상 놓치지 않을 거예요~(Feat. 김희애)

고객의 입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중국 KCB에서 온 편지



맡은 자리의 주인이 되어 함께 나아갑시다

안녕하세요. KCC 북경공장의 김동욱 부장입니다. 2002년에 입사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CC의 우수한 수용성 도료 기술과 여러 부서 간의 협력으로 북경현대의 많은 주종 컬러와 70종류 이상의 택시 컬러를 KCC가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북경현대 자동차 감리업무 담당자로 입사했습니다. 중국 자동차시장이 큰 성장기를 맞이하면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3년간 경험을 하였습니다. 비록 주야로 생산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매일 하루가 아주 충실했던 하루였습니다.

감리 업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선의 신임을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거래선 입장에서 빠른 시일에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 감리 업무의 노하우죠. 환경규제가 강해지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은 3C1B와 B1B2도장 시스템이 라인 적용에 성공하여 KCC자동차도료 판매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초를 닦는 한해가 되어야 합니다.

KCC 전직원이 맡은 자리의 주인이 되어 기술력과 품질이 뛰어난, 희망이 가득한 회사의 소속원으로 노력합시다.

金东旭

김동욱
감리

드넓은 중국 땅에도 KCC의 컬러로 물들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있어 중국 시장 점유를 위한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마음이 든든하다. 이번에는 지난 호 인도에 이어 중국 KCB에서 편지가 왔다. 편지 속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읽어본다.

KCC의 새로운 10년을 함께 열어갑시다

안녕하세요, KCC 북경영업소 영업팀의 판센천(范憲臣)입니다. 저의 주 업무는 자동차와 부품 도료를 중국 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일입니다. 2006년 9월에 입사하여 벌써 근무한 지 14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발전과 더불어 저 역시도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KCC라는 대가족의 일원으로 잘 녹아 든 것 같아 기쁩니다.

직무가 직무인 만큼 매일 급박하고 긴장감 넘치는 근무 환경 속에 있지만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체계를 잃지 않기 위해 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회의, 팀 관리, 직원 교육 및 소통, 타 부서와의 협조 업무 등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신규 고객을 발굴하고, 꾸준히 방문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리의 주인이 되자!”는 KCC가 직원들과 공유하는 가치입니다. 직원 개개인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고, 회사를 집처럼 여기며, 그 누구보다 착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직원 모두가 회사라는 공동체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중국 경제도 그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들도 이런 상황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가까운 근래에는 낙관적인 전망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욱 힘을 내어, 배울 수 있는 팀을 만들고자 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그들의 수요를 철저하게 파악하여, 고객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로 다가갈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끽끗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발 빠른 행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기회를 선점하여, KCC의 새로운 10년을 함께 열어갑시다. 힘을 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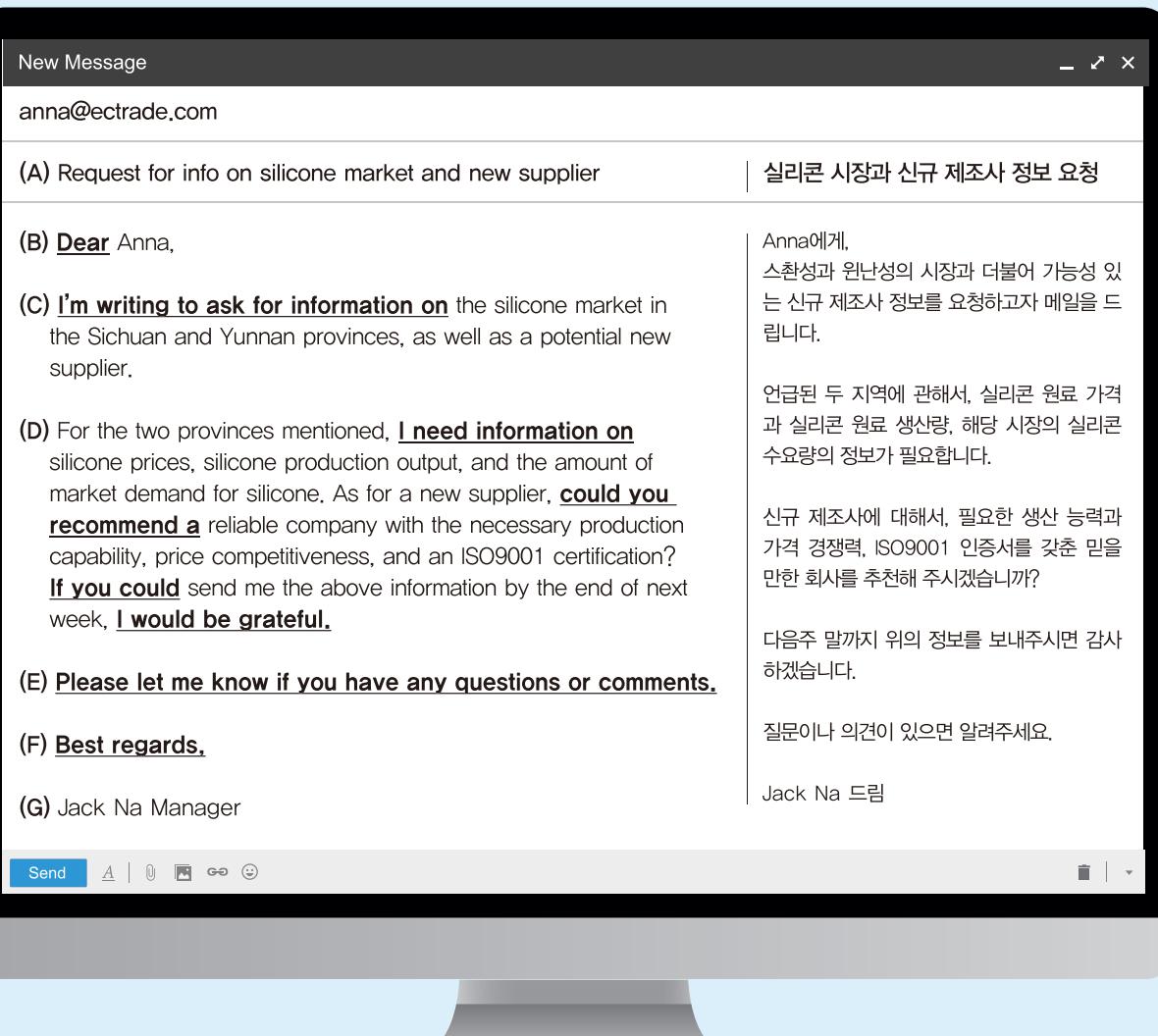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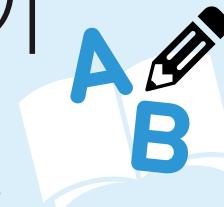
范憲臣

판센천
영업팀

비즈니스 이메일은 이렇게! 정보 요청 이메일 작성하기

글. 케빈 경(《비즈니스 이메일 영어표현사전》 저자)

구매부에서 일하고 있는 나열정 대리(영어 이름 Jack Na). 이번 해부터 중국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새 마음, 새 뜻으로 모든 마음의 준비를 마쳤을 그 때, 첫 임무가 떨어졌다.



KEY 체크 포인트: 정보 제공 요청 이메일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는 예의를 갖춰서 이메일을 작성해야 한다. 상대가 훈련없이 쉽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희망하는 회신 날짜와 함께 상세히 표시한다. 해당 정보가 필요한 이유도 함께 언급하면 좋다.

- | | | | |
|---|---|---|---|
| 
김꼼꼼 과장 | 1#
나 대리, 중국의 Everything China Trade 무역회사 쪽에 정보 요청을 해야 할 게 있어요. 중국 스촨성, 윈난성 지역의 실리콘 시장 정보가 필요해요. | 
김꼼꼼 과장 | 3#
네. 그리고 신규 제조사도 소개 받았으면 하는데, 생산 능력, 가격 경쟁력, ISO9001 인증서를 보유한 회사였으면 합니다. |
| 
나열정 대리 | 2#
네! 실리콘 원료 가격, 실리콘 원료 생산량, 해당 지역의 실리콘 수량을 확인하면 될까요? | 
나열정 대리 | 4#
딸기만 주세요. |

 **비즈니스 이메일 기본 포맷**

(A) 제목	제목은 수신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문의 헤드라인 같이 뚜렷하고 간결하게 쓴다. 제목이 너무 짧으면 이해가 어렵거나 찾기 어렵다. 제목이 너무 길면 이해가 어렵거나 찾기 어렵다. 또한 불필요한 관사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B) 인사말(salutation)	격식을 갖춘 이메일에서는 흔히 Dear 다음에 Mr. 또는 Ms를 쓰고 성(last name)을 쓴 후 콜론(:)이나 콤마(,)를 붙인다. 잘 아는 사이인 경우에는 성 대신 이름(first name)을 쓰면 그만큼 거리감을 줄일 수 있다.
(C) 도입부(starting)	답장일 경우 “~에 감사드립니다”를 의미하는 “Thank you for...”를 쓰기도 하지만, 새로운 주제의 이메일이라면 간단하게 “~하고자 이메일을 드립니다”를 뜻하는 “I am writing to + 동사” 패턴을 써서 용건을 제시하면 된다. “다름이 아니라 ~ 관련으로 이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라는 느낌이 나는 표현이다.
(D) 본문(body)	도입부에서 직접 언급하거나 예고한 내용을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쓴다. 주제에서 벗어나는 불필요한 내용은 삼가야 한다.
(E) 맺음말(closing)	
이메일의 내용이 좋은 나쁘든, 맺음말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이 좋다. 영어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는 “질문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를 뜻하는 샘플에 나오는 맺음말이다.	
(F) 결구(complimentary close)	
우리말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등을 의미하는 결구는 보통 친근감 있는 표현으로는 “Sincerely yours”나 간단하게 “Sincerely”, 또는 “With best regards” 등이 적합하다. 친하거나 자주 거래하는 사이의 경우에는 샘플에 제시한 “Best regards”나 간단하게 “Regards”를 쓰면 된다.	
(G) 이름	
이름과 성(full name)을 함께 쓰기도 하지만 친한 사이인 경우 간단하게 이름(first name)만 넣기도 한다. 단, “Mr.”이나 “Ms.” 등의 호칭은 쓰지 않는다.	

 **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패턴 표현**

I'm writing to ask for information on... ~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자 이메일을 드립니다. 샘플: I'm writing to ask for information on your line of writing products.	I need information on...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샘플: I need information on the new project.	Could you recommend a...? ~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샘플: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If you could..., I would be grateful. ~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샘플: If you could postpone the meeting, I would be grateful.
--	--	---	--

물의 침투를 막는 기술

방수

비 오는 날 애용하는 우산, 물속을 담아내는 방수카메라, 물에 놓아도 지워지지 않는 화장품, 건물에 비가 스며들지 않게 처리하는 방법 등 방수 기술은 인간에게 실로 엄청난 편의를 안겨주었다. 일상 생활에서부터 산업까지 없어서 안 될 방수에 대해 알아본다.



물은 달라붙기를 좋아해

방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물'의 특성을 살펴보자. 물 분자는 서로 응집하고 많은 것을 용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용매이다. 이러한 물은 인간에게 절대 없어선 안 되는 존재이지만 때로는 생활에 불편함을 준다. 특히 옷 속으로 스미는 물은 불쾌감을 몰고 온다.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 원자가 서로 결합하는 성질이 있다. 다른 액체에 비해 표면 장력이 세다. 여기서 문제는 자신에게만 잘 붙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다른 모든 것에도 잘 달라붙는다. 이러한 점착성 때문에 물건이나 피부에 달라붙어 사람과 기계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방수, 즉 물을 막는 기술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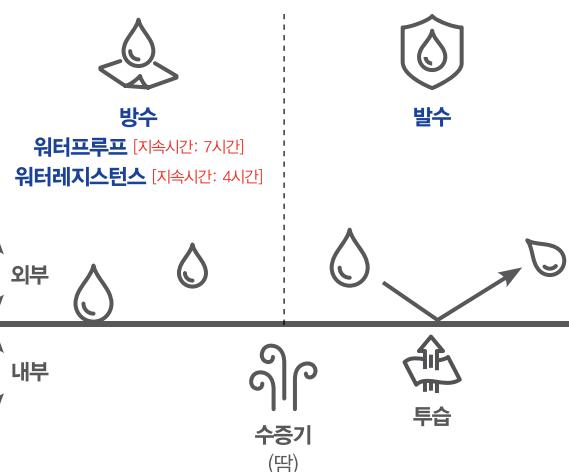
사전적 의미의 방수는 '각종 물질의 표면을 파라핀, 플라스틱과 같은 소수성 물질로 코팅해 물질 자체에 소수성을 주는 것'이다. 소수성이란 물과 친하지 않아 섞이지 못하는 성질인데, 좀 더 쉽게 풀자면 방수는 결국 '물의 침투를 막는 기술'이다. 방수가공은 PVC 등의 소재를 사용해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표면처리를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건물과 아스팔트, 목재, 전자제품, 자동차 등 비와 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화학기술이다.

방수와 함께 용어 혼돈을 일으키는 것이 '발수'다. 방수와 발수 둘 다 물의 침투를 막는다는 면에서는 그 역할이 같다. 하지만 이 둘을 구분짓는 결정적 차이는 바로 공기 투과 가능 여부다. 방수가 코팅이나 밀폐로 표면을 덮어 물의 침투를 막는 것이라면, 발수란 액체인 물은 막겨내지만 그보다 작은 입자인 공기는 통과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쉽게 생각하자면 우비와 아웃도어 옷을 떠올려 보면 된다. 우비를 오랜 시간 입고 있으면 땀 차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아웃도어 옷의 소재, 가령 고어텍스는 1제곱인치 당 80억 개 이상의 미세한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구멍의 크기는 물방울 입자보다 2만 배 이상 적지만 수증기 분자보다는 70배 이상 커서 물은 차단하면서 땀은 배출해주는 투습 기능을 가졌다. 그래서 입으면 그 속에서 땀이 차지 않고, 그만큼 착용 시쾌적하다. 이것이 바로 방수와 발수의 차이다.

방수 = 워터프루프 & 워터레지스턴스

방수는 화장품에서도 사용되는 용어다. 여름철 수영장이나 땀으로 인해 화장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워터프루프(waterproof)가 방수와 같은 의미다. 보통 화장품은 오일인워터('oil in water') 형태로 수분이 기름을 감싸는

수용성 수분막을 형성하는 원리로 물에 잘 번진다. 반면, 워터프루프 화장품은 '워터인오일(water in oil)' 형태로 유분이 막을 형성해 물이나 땀에 번지지 않게 한다. 물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워터프루프와 함께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워터레지스턴스(water resistant)다. 이 용어는 시계의 안쪽 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워터레지스턴스도 방수와 동일한 뜻이다. 워터프루프도 워터레지스턴스도 결국 방수와 같은 의미라면 워터프루프와 워터레지스턴스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구분해 쓰는 것일까? 바로 방수시간의 차이다. 보통 업계에서는 워터프루프는 물에 대한 지속력이 7시간, 워터레지스턴스는 4시간일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한다. 워터프루프가 좀 더 강력한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말이다. 물이나 땀에 쉽게 지워지거나 희석되지 않는 내수성을 뜻할 때 워터레지스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물속에서 20분 간격으로 2회 입수한 후 도포량의 50% 이상이 지워지지 않았을 때 일반 내수성 등급, 같은 방법으로 4회 입수 후 측정하는 것이 지속 내수성 등급을 받는다고 한다. 자외선차단제를 보면 워터프루프 기능이 포함된 제품들이 있는데, 사실 워터프루프라는 용어는 소위말해 오버다. 워터레지스턴스라는 용어가 적당하다. 국제표준화기구와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에서는 시계나 웨어러블 기기 등에 워터프루프라는 용어를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반드시 워터레지스턴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워터프루프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최소 잠수함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한다. 방수이지만 투습기능의 유무로 갈리는 방수와 발수, 물에 견디는 지속성의 차이에서 나누지만 방수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워터프루프와 워터레지스턴스, 혹시 제품을 구매하려다 이 용어를 발견한다면, 이제부터 헛갈리지 말고 바로 의미를 파악해보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회사의 법적 효력을 담고 있는 징표
‘인감사용법’**

한 개인이 각종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대부분 인감을 날인한다. 이는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며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회사 또한 마찬가지로 계약 시 인감을 날인하도록 되어있다. 단 회사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에 비하여 계약의 횟수가 많고 방법 또한 다양하여 하나의 인감으로는 계약을 모두 처리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글. 총무팀 유지선 대리



Q. ‘법인인감’, ‘사용인감’은 무엇인가요?

A. 회사는 개인인감처럼 등기소에 등록된 인감이 있으며 이를 법인인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인인감을 계약서에 날인함으로써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우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직원들이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번 법인인감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코자 만든 것이 회사 내부적으로 제작하여 관리하되 등기소에는 신고되지 않은 인감, 바로 사용인감입니다.

Q. 사용인감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사용인감계란 무엇인가요?

A. 사용인감 또한 인감으로써 효력을 가지며, 이를 날인하면 회사에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용인감을 법인인감과 같은 효력을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사용인감계입니다. 사용인감계는 각 부서에서 보관 중인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해당 사용인감의 용도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법인인감증명서도 첨부하면 그 사용인감은 해당 용도에서는 법인인감과 같은 효력을 미치게 합니다.

Q. 이외에 회사업무 수행할 때 권한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나요?

A. 대표적으로 위임장이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및 대리인의 성명 등이 적혀있는 문서로 법인·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위임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Q. 그럼 우리회사에서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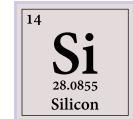
A. 그룹웨어 상에 인감 관련 신청서 양식으로 법인·사용인감 날인 및 사용인감계, 위임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은 임원, 사용인감은 부서장 전결로 되어있으며 각 인감의 관리부서에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각 인감관리부서에서는 해당문서를 접수하면서 날인할 서류 및 증빙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날인을 진행합니다. 사용인감계와 위임장의 경우 신청서 상신 후 해당문서를 KERP 상에서 출력하여 내용기입 및 사용할 인감을 날인한 후 원본을 인감 관리부서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Q. 인감 관련 서류의 신청 및 날인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어느 인감이든 날인 시 회사에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은 차이가 없으며 그렇기에 날인할 서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청부서에서는 1차적으로 해당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된 증빙을 인감 관리부서에 제공하여야 하며, 인감 관리부서에서는 날인 전 신청서 및 증빙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감의 오남용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일어나는 경우 과실여부 및 손해의 정도에 따라 징계,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부서, 관리부서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기율표〉는 KCC의 주요 원소들의 이야기를
매호 시리즈로 알아보는 컬럼입니다.

주요원소 시리즈



원자 번호: 14

기호: Si

원자 질량: 28.0855g/mol

녹는점: 1,414°C

끓는점: 3,265°C

발견연도: 1824년



규소 만든 실리카

차돌에서 반도체까지 무한 변신!

보석 같은 원소, 규소

전자와 세계 반도체 산업이
모인 첨단기술의 기지인 미국의
실리콘밸리.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과 계곡(밸리)을 합쳐서
실리콘밸리라고 부른다. 여기서
실리콘은 바로 원소 '규소'다.
이 작은 원소 하나가 현재
첨단기술의 중심지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규소가 세상에
퍼뜨린 힘은 대단하다.



규소

일상 속 친근한 원소

규소는 우리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원소다. 유리창에도 있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속의 반도체에도 있으며, 샴푸나 로션, 식료품 포장 속에 들어가는 실리카겔에도 있다. 규소는 모래에 많이 들어있는데, '유리를 만드는 흙의 원소'라는 뜻의 한자식 표기(硅素)도 이를 잘 보여준다. 규소는 산소 다음으로 지각에서 두 번째로 많은 원소다. 지각 전체 질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각 무게의 무려 25%를 차지한다. 만약 외계인이 지구를 지금 막 발견하게 되었다면, '규산염 덩어리가 물에 덮인 행성'으로 정의할지도 모른다.

규소는 회백색의 결정으로, 녹는점(1,414°C)이 높고, 단단하며, 반도체의 재료에 쓰인다. 자연 상태에서 원소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싯돌, 수정, 석영, 마노, 자수정, 오팔 등과 같은 규소산화물이나 화강암, 석면, 장석, 운모, 점토 등과 같은 규산염이 우리에게 더 친숙할 것이다. 이러한 화합물 속의 규소는 별이 초산성으로 붕괴될 때 죽어가는 별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생성된 후 방출된 것이다.



규소로 만드는 액정보호필름 PSA 접착제

규소로 만드는 반도체

우리 삶을 빛나게 해주는 존재

규소 화합물을 오래 전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원시인들은 부싯돌로 무기를 만들었고, 건축에 사용되는 화강암 등의 암석들은 매우 복잡한 규산염 광물이다. 모래(이산화규소)와 점토(규산알루미늄)는 콘크리트, 시멘트, 세라믹, 애나멜의 주성분이다. 오팔, 석영, 자수정은 모두 고대 문명에서 귀하게 여겼다. 흑요석 형태의 유리는 일부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생긴다. 기원전 2세기경, 인류는 모래를 녹였다 굳혀서 다른 형태로 만들 때 부산물로 작은 유리방울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유리 제조 방법을 알아냈다. 그리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규산염 광물 중 하나인 석면은 불에 잘 타지 않기 때문에 수천년 동안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발암 물질로 알려져 석면 사용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규소 출원소를 처음으로 분리한 사람은 스웨덴 화학자 베르셀리우스다. 그는 플루오르화 규소산 포타슘에서 상당히 순수한 규소 분말을 분리했다. 그리고 1954년에야 비로소 프랑스 화학자 헨리 드빌에 의해 결정질 규소가 만들어졌다. 실리콘(Silicone)이라는 영문명은 라틴어 부싯돌을 의미하는 'Silex'와 주기율표상에서 바로 위에 위치한 형제 원소인 탄소

'Carbon'의 'on'이 합쳐져 탄생했다.

화학자 헨리 드빌이 결정질 규소를 만든 후부터 규소는 아주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었다. 알루미늄-규소 합금과 철-규소 합금으로 전동 공구나 변압기용 강판, 엔진블록 등을 만든다. 규소와 탄소가 혼합된 탄화규소는 강한 연마재가 된다. 규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실리콘 중합체는 고무와 비슷해서 욕실 방수를 할 때 쓰인다.

첨단 기술, 규소를 빼고 논하지 말라

첨단 기술의 중심지에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실리콘 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리콘 칩은 반도체의 성질을 갖고 있는 규소 결정으로 만든다. 반도체는 일정한 환경에서는 전기가 통하지만 그 외 환경에서는 전기 전도성을 갖지 않는다. 실리콘 칩에 사용하는 재료는 사실 불순물이 추가된 실리콘이다. 다른 원소들이 조금씩 섞여 실리콘 칩이 일종의 소형 트랜지스터처럼 작동한다.

규소는 다양한 형태로 합성이 가능해 우리 일상의 수많은 제품에서 활용되며, 금속과 비금속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어 반도체, 우주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재료로 쓰인다. 또한 화석 연료에 비해 몸에 덜 해롭고, 환경 오염이 적어 미래 에너지로 평가되고 있다. 태양 전지의 핵심 요소로 활용되고, 규소 화합물을 태워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연구도 진행 중인데, 이는 디젤 연료와 비슷한 효율을 낼 수 있다고 한다.

반짝반짝 빛나는 수정(Crystal)도 규산염의 한 형태다.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를 창조하는 '규소'는 인간의 삶에 있어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규소로 만드는 고무



2020년도 KCC 본사 시무식 개최

1월 2일 본사 지하 1층에서 2020년도 시무식이 진행되었다. KCC 민병삼 사장은 “영업을 포함한 기술, 생산, 관리 등 전 분야에서 고객을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경영을 위해 조직체질을 개선하자”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급변하는 미래환경에 대비하고, 정도 경영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계속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KCC Holds Kick-off Meeting for 2020

On January 2, 2020, KCC held the kick-off meeting for 2020. At the meeting, KCC CEO Byung-sam Min emphatically addressed the employees, “KCC needs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best support our clients in all areas including sales, technology, production and management,” urging them to improve the company’s organizational culture to facilitate field-oriented management. He also added with determination, “KCC will prepare ourselves for the future environment of rapid change and will continue to grow as a social enterprise through ethical management.”



2



2020년도 신입사원 입사식 개최

1월 10일 교육원 대강당에서 2020년도 신입사원 입사식이 열렸다. 입사식에는 KCC 민병삼 사장을 비롯한 본부장들이 참석해 신입사원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KCC 민병삼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간직하고 있는 꿈과 열정을 가지고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배우고 노력한다면, 미래에 당당한 회사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전하며, “앞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배우고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주도하여 혁신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덧붙여 “글로벌 첨단소재 기업으로 도약하는 KCC에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무한한 꿈을 펼쳐나가시기 바란다”며 신입사원들의 힘찬 새 출발을 응원하였다. 끝으로 신입사원들은 KCC배지를 수여 받고 함께 사가를 부르며, 진정한 KCC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교육훈련팀 하순철 사원



2020년도 KCC건설 시무식 개최

1월 2일 KCC건설 본사 9층에서 2020년 시무식이 열렸다. 본사 및 현장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몽열 사장은 “올해 글로벌 저성장 기조에 따른 국내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수주, 매출, 손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KCC건설 박규현 주재기자

2019년도 KCC건설 종무식 및 여직원 다과회 개최

지난 12월 31일 KCC건설 본사 9층에서 2019년 종무식이 열렸다. 종무식에 참석한 본사 임직원들은 회사에서 제공한 음식과 함께 서로 담화를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종무식과 함께 진행된 여직원 다과회에서는 소외된 이웃을 돋기 위한 모금행사도 개최되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6

KCC건설,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 제5공구 수주

KCC건설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 제5공구를 수주했다. 이 사업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일환으로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조기 융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총 11개 공구 중 KCC건설이 수주한 5공구는 세종시 봉대리~천안시 신풍리까지 5.62km를 연결하고, 총 공사비 2,038억 중 당사분은 1,631억(80%)이며, 세기건설(주)(10%), 쭈수성(10%)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주하였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최종 개통되면 서울에서 세종까지 통행시간은 평일 기준 약 34분 단축되며, 경부선과 중부선으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일정 부분 분담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KCC건설 김성민 사원



안성공장, 안전기원제 실시

지난 1월 10일 안성공장은 안전기원제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일 공장장을 비롯해 임직원 및 협력업체 관리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안성공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지신명께 잔을 올리고 무재해·무사고를 기원하였다. 박성일 공장장은 “모든 구성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선진 안전문화 체계를 구축하고,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안성공장을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안성공장 강민중 주재기자

7



KCC, 11년 연속 '세계일류상품' 선정

KCC 선박용 방청도료와 진공차단기용 세라믹이 11년 연속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선박용 방오도료 역시 9년 연속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

세계일류상품은 국내 수출산업을 주도할 대표 상품을 육성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부여하는 공식 인증이다.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점유율 5% 이상 △시장 규모 연간 5000만 달러 이상 또는 수출 규모 연간 500만 달러 등 조건을 충족해야 세계일류상품으로 뽑힐 수 있다.

11년 연속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선박용 애폭시 방청 도료 'Korepox EH2350'은 내염수성과 내마모성이 매우 뛰어난 제품이다. 극심한 해양 부식 환경 속에서 선박의 해수 탱크, 파이프 등 철 구조물을 보호해 녹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9년 연속 선정된 방오도료 'Seacare A/F795'는 오염방지 기능이 뛰어나 장기간 운항하는 선박의 선체에 붙어 서식하는 해충 생물체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고 선박의 운항 효율을 증가시켜 연료를 절감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KCC 선박용 방청·방오도료는 이미 여러 국가 선박에 적용돼있을 뿐 아니라 격년으로 열리는 국제 조선·해양·오일&가스 종합전시회 코마린(KOMARINE)에서도 전시돼 전 세계 관람객의 관심을 받은 KCC 대표적인 제품이다. 진공차단기용 세라믹 'VI (Vacuum Interrupter)'는 전류의 정상부하 개폐 및 전류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로를 분리하는 진공 차단기에 사용되는 세라믹 소재로, KCC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유수의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다.

KCC 관계자는 "KCC는 2009년부터 꾸준히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며 선박용 방청·방오도료, 진공차단기용 세라믹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제품임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텁(Global Top) 제품의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 품질을 높이고 고객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보광고팀 안상욱 대리

49

8



KCC, 연말연시 사회공헌활동 활발

KCC는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고자 가평, 여주, 안성 등 전국 사업장에서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약을 맺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발히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KCC글라스 가평공장은 지난 연말 공장 소재지 인근 마을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33개 가구에 450만원 상당의 식품과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추운 겨울을 보내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따뜻한 희망을 전달하자 했다. 또 지난 12월 24일에는 가평군청을 방문해 김성기 군수에게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한동희 가평공장장은 "가평에서 사업을 하는 만큼,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기탁된 성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주공장은 바르게살기운동여주시협의회가 진행하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희망의 사진촬영 교육프로그램 '동행'에 1천만원을 후원했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희망의 사진촬영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로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는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개최됐으며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주체가 되어 장애로 인해 상실된 자신감 및 자존감을 향상하고, 시각예술 활동에 배제됐던 시각장애인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화제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KCC 안성공장에서는 지난 12월 27일 서운면 저소득가정과 지역주민을 위해 백미 100포, 라면 100상자 등 생필품을 서운면에 기탁했다. KCC 안성공장은 2014년 안성 제4공단에 입주해 2015년부터 매년 연말연시 판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물품을 기탁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서운면 발전협의회에 3억 원을 기탁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서운상생장학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9



KCC '쿨루프 하남(Cool Roof)' 사업협약 체결

1월 17일 KCC가 하남시와 민·관 협력 프로젝트 '쿨루프 하남(Cool Roof)' 사업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쿨루프 하남' 사업은 하남시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자원봉사 및 기부)이 연계하여 에너지소외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노후건축물 지붕에 차열페인트를 도색해 주는 사업이다. 하남시와의 사업시기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절기 이후부터 폭염 및 우기 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쿨루프 캠페인은 건물의 지붕에 차열 페인트를 도장함으로써 지붕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활동이다. 햇빛과 태양열을 반사하는 효과가 있는 밝은 색의 차열페인트를 시공해, 지붕이 직접 받는 열기 축적을 감소시켜 건물 온도를 낮춰주는 원리이다. 별도의 큰 공사 없이 페인트만 칠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건물의 온도를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인 폭염 대책으로 손꼽힌다.

KCC는 이번 쿨루프 캠페인에 고기능성 차열 페인트 '스포탄상도(에너지)' 제품을 무상 지원하고, 도색 작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협약했다. 스포탄상도(에너지)는 일반 도료 대비 실내 온도를 최대 5°C 가량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 태양광 적외선을 페인트가 큰 폭으로 반사시켜 지붕이 직접 받는 열기 축적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 덕분에 여름철 뜨거운 햇볕으로 인한 건물 내부로의 열 전달을 막고, 실내 냉방에 드는 에너지를 평균 20% 정도 절감할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비슷한 효과를 내는 옥상 녹화 사업에 비해 시공 속도가 빠르고 비용도 저렴한데다 어느 건축물이나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홍보광고팀 김학범 과장

Quiz

이번 호도 꼼꼼하게 잘 읽어보셨나요? 가벼운 퀴즈를 통해 당신의 실력을 점검해보세요!
아래 QR코드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께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다음 중 창호 제품 '뉴하드윈 V9' 설명에 대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PVC와 알루미늄 CAPO이 결합된 복합재질 창호다.
- ② No White 컬러 콘셉트를 적용하여 PVC창호의 백색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했다.
- ③ 창호 내부 전면에는 다크 브라운 컬러를 적용한 공압출 창틀프레임을 적용했다.
- ④ 창호의 슬라이딩 레일에도 알루미늄 레일 캡을 적용해 고급화 했다.
- ⑤ 고급화된 만큼 하이프라이스(High Price)로 책정되었다.

2 다음 중 전주1공장 설명에 대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1994년 4월 24,400평 규모의 원주산단에서 준공했다.
- ② 한국사용품질 창호부문 1위, 2014년 한국산업브랜드파워 창호제 부문 1위
브랜드로 선정되었다.
- ③ 이번 4월 환경인증 획득을 앞두고 있다.
- ④ 패시브 창호 개발과 더불어 2018년 패시브 시스템 창호 PH 인증을 받았다.
- ⑤ 정기적으로 대리점 경영진 및 실무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3 다음 중 부산 신선대 준설토타기장 호안 태풍피해 복구공사 현장 설명에 대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2016년 태풍 네파탁에 의한 피해 복구 공사 현장이다.
- ② 공사규모는 준설토타기장 호안 547m다.
- ③ 태풍에 파손, 유실된 호안 정리와 함께 지반 개량 공사를 재시공하고,
그 위에 소파블록을 한 겹 더 쌓는 공사를 진행한다.
- ④ 지반 개량 공사 시 해저에 기둥 높이의 구멍을 뚫고 시멘트를 분사함으로써
바닷속에서 직접 기둥을 만드는 고압분사시멘트몰탈충전공 공법을 사용했다.
- ⑤ 공사가 완료되면 신선대 호안은 폭이 기준보다 10m 넓어지고 높이도 1m 이상
올라간다.

4 회사는 개인인감처럼 등기소에 등록된 인감이 있으며, 이를 '이것'이라고 한다. '이것'을 계약서에 날인함으로써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것'에 해당하는 말은 무엇인가?

()

2월 7일 도착분에 한함
QR코드 주소
183.96.160.189:5656/poll.html
메일 주소
sabo@kccworld.co.kr

KCC Facebook
<https://www.facebook.com/kcc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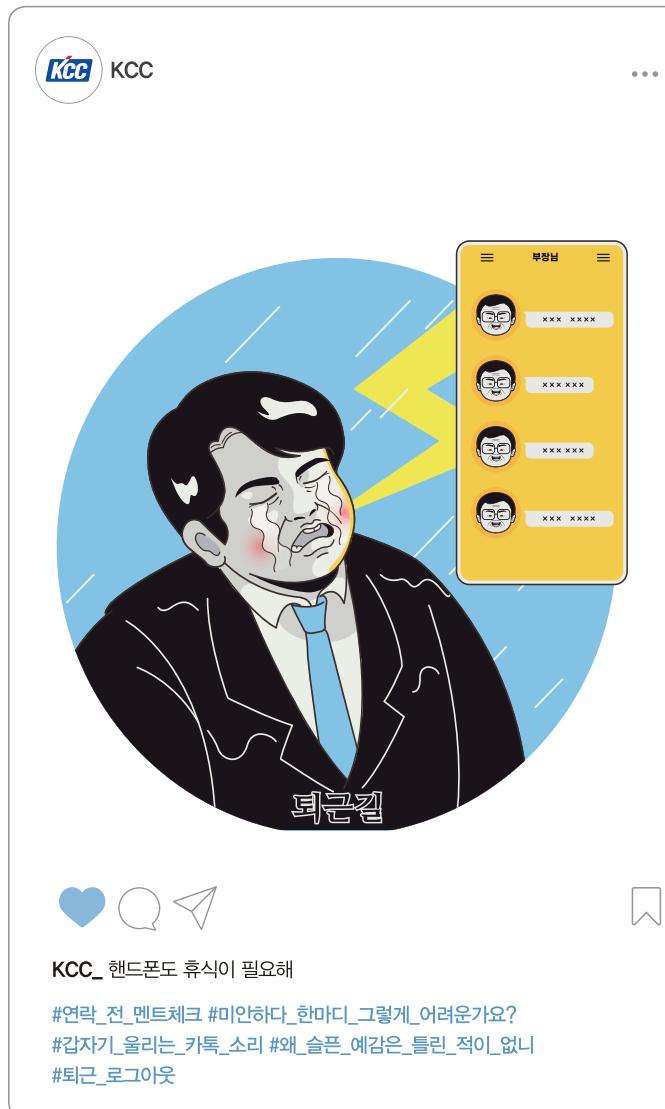
KCC Blog
blog.kccworld.co.kr/

함께하는 걸음

다함께 긍정적인 사내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 코너 <함께하는 걸음>
앞으로 12달 동안 제시되는 캠페인 주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2020년의 두번째 주제는 '업무시간 외 연락'입니다.

업무시간 외 연락

“미안하지만
한마디를
붙여주세요.”



KCC_ 핸드폰도 휴식이 필요해

#연락_전_멘트체크 #미안하다_한마디_그렇게_어려운가요?
#갑자기_울리는_카톡_소리 #왜_슬픈_예감은_틀린_적이_없니
#퇴근_로그이웃

직장인의 퇴근 후 힐링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업무시간 외 연락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퇴근 후 연락'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말 급한 일이라면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었으면 한다는 답변이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최소한의 예의란 미안하다는 말 정도는 붙이자는 것입니다. 퇴근 후 연락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하지만 정말 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우리 모두 이 한마디 붙여봅시다.

“퇴근 후 연락드려 죄송합니다.”